

I

경영환경

- 2021년 1/4분기 세계경제는 백신보급·접종 확대와 지속적 경기부양 효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
 - 2021년 1/4분기 세계 무역과 산업 생산은 2020년 2/4분기 큰 폭으로 감소 후 3분기 연속 반등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함
- 2021년 1/4분기 우리나라는 1.9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,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며 2021년에는 4.0%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
 - 2021년 1/4분기 민간소비와 소매판매가 모두 증가하였고, 수출입 증가율 또한 2020년 2/4분기의 큰 폭 하락 이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3.8%, 4.4%로 전망함
-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.5%로 동결함
 - 2021년 경제성장률은 4.0%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국내 금융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-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로 전 구간에서 하락하였으며, 장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됨
 -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로 장기물 상단이 제한되며, 금리차가 빠르게 축소됨
- 2021년 1/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, 국내외 주식 거래는 전기 대비 증가한 반면, 보험 및 연금, 채권 거래는 감소함
 - 2021년 1/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.4%로 전년도 1분기에 기록한 10년 내 역대 최저치(13.3%)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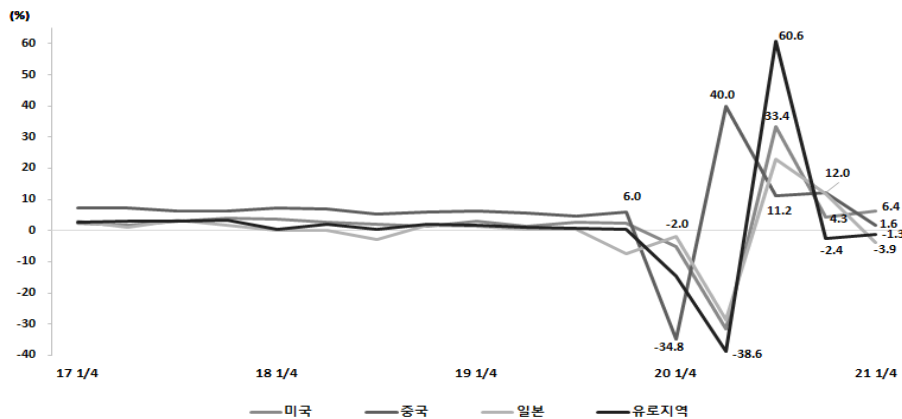
1. 경제

가. 세계경제

○ 2021년 1/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보급·접종 확대와 지속적 경기부양정책 효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함

- 미국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에 따른 소비 증가 및 기업의 생산활동 재개 등으로 6.4%를 기록함¹⁾
- 중국 GDP 성장률은 1.6%로 전분기보다 10.4%p 하락하였으나,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하며 양호한 경기 회복흐름을 이어감
- 일본 경제성장률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행된 봉쇄조치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및 주택투자 축소 등으로 전분기 성장률 대비 15.6%p 하락한 -3.9%를 기록함²⁾
- 유로지역은 2021년 1/4분기에 투자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(-1.3%)이 지속됨³⁾

〈그림 1〉 주요국 경제성장률



주: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, 계절조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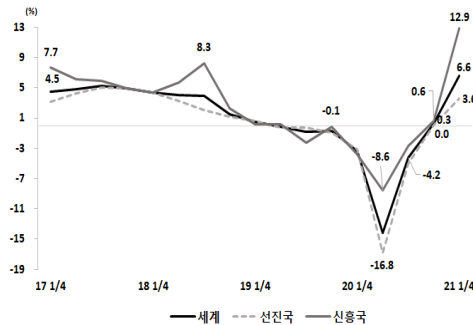
자료: Bureau of Economic Analysis(2021. 6); 중국 국가통계국(2021. 7); 일본 내각부(2021. 6); Eurostat(2021. 6)

1)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ews Release(2021. 6), "Gross Domestic Product by State", 1st Quarter 2021
2)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(2021. 6), "Quarterly Estimates of GDP for January - March 2021"
3) Eurostat(2021. 6), "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1"

○ 2021년 1/4분기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6.6%, 5.5%로 2020년 2/4분기 큰 폭의 하락 후 3분기 연속 반등함

- 선진국 무역규모는 3.6% 증가하였고, 신흥국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12.9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.9% 증가하였고,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2.3% 확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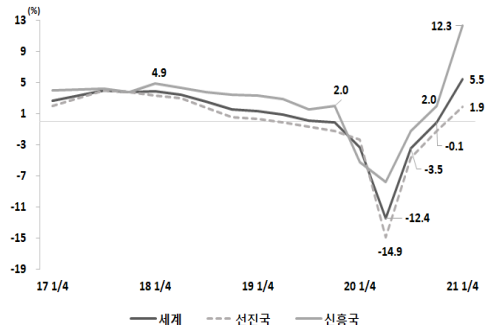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〉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임
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(2021. 6)

〈그림 3〉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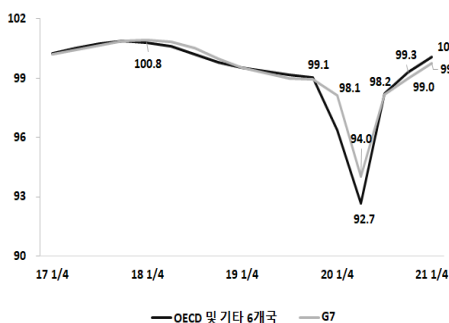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임

자료: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(2021. 6)

○ 2021년 1/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⁴⁾는 100.1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4/4분기 수준을 상회함

-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9.8로 전분기보다 0.8p 상승하였고, 미국, 유로지역, 일본은 전분기보다 1.0p, 0.6p, 0.6p 상승한 99.8, 99.3, 100.1을 기록하였으며,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1.0p 상승한 101.7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

〈그림 4〉 세계 경기선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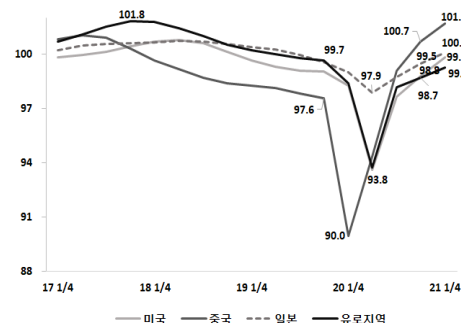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
2) 기타 6개국은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임

자료: OECD

〈그림 5〉 주요국 경기선행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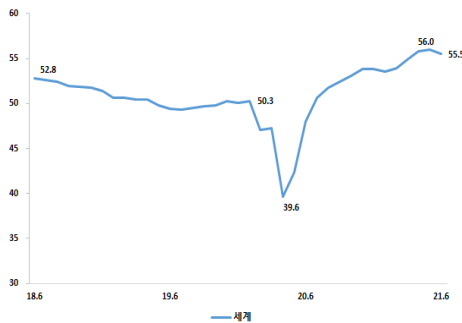


4)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,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,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

○ 2021년 6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⁵⁾는 55.5로 최근 5년 이내 최고치였던 전분기 56.0에서 소폭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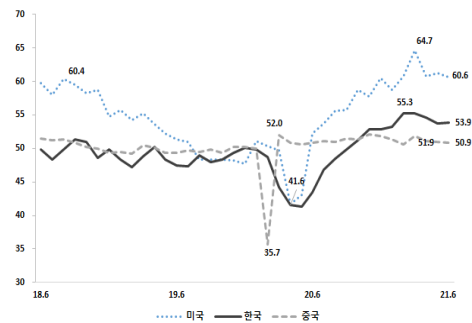
- 2021년 6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는 60.6으로 지난 3월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고 있고, 한국과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각각 53.9, 50.9를 기록함

〈그림 6〉 세계 제조업 PMI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〈그림 7〉 주요국 제조업 PMI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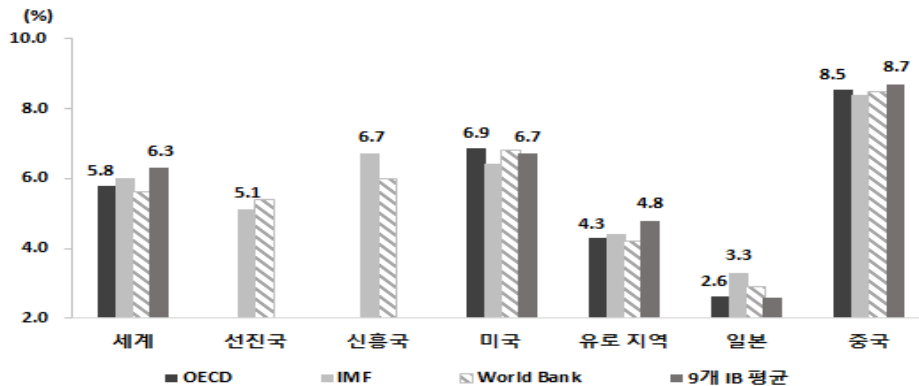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

○ 주요 기관들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 확대로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

- OECD는 선진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근거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1년 3월 전망했던 5.6%에서 2021년 5월 5.8%로 상향 조정함⁶⁾

〈그림 8〉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



주: 9개 IB: Barclays, BoA-ML, Citi, BNP Paribas, Goldman Sachs, J.P. Morgan, Nomura, Societe Generale, UBS
 자료: IMF(2021. 4); OECD(2021. 5); World Bank(2021. 6); 9개 IB 평균(2021. 6)

5) PMI(Purchasing Managers' Index)는 생산, 신규주문, 수출주문, 취업, 부품구매, 주문잔고, 납품업체 배송,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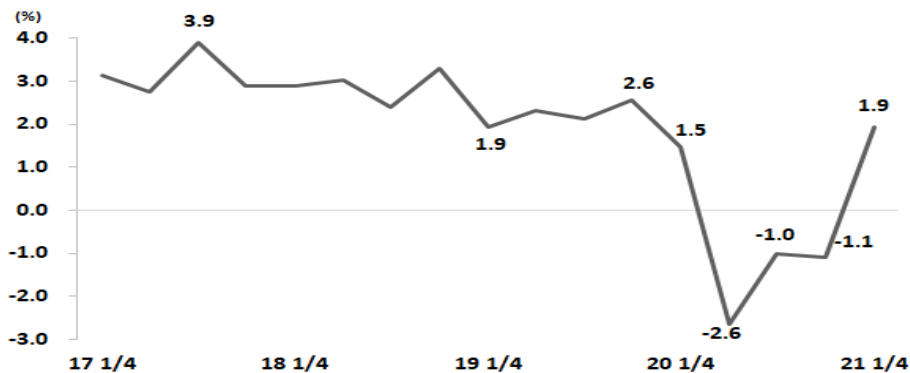
6) OECD(2021. 5), "OECD Economic Outlook", Volume 2021, Issue 1

나. 국내경제

○ 2021년 1/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.9%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, 2020년 2/4분기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남

-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.2%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됨
 -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.4%로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고,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
 - 소비자심리지수는 97.8로 전분기 대비 3.4p 상승하였으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
- 설비투자,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됨⁷⁾
 - 설비투자는 1월과 3월 특수 산업용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⁸⁾ 전년 동기 대비 12.4% 증가하였고,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.2% 증가한 반면,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.8% 감소하며 3분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임
 - 기계수주는 3월에 전년 동기 대비 15.5% 증가하였고, 건설수주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7.3% 증가함
- 2021년 1/4분기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5.1%, 4.1%로, 2020년 2/4분기 큰 폭의 하락 후 3분기 연속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
〈그림 9〉 국내 경제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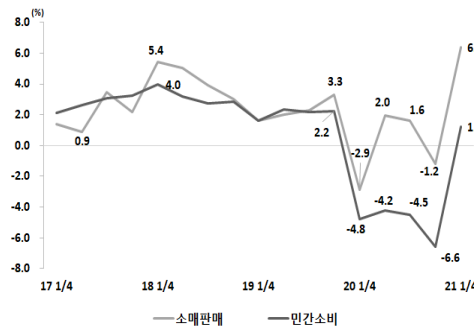
주: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
자료: 한국은행

7)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4), “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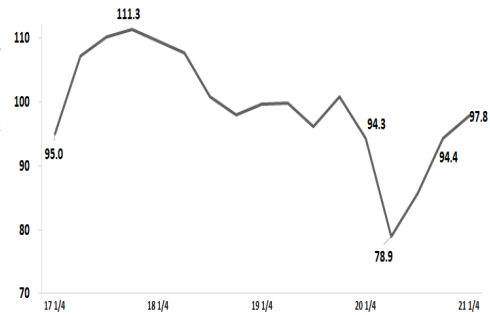
8)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4), “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”; 통계청 보도자료(2021. 2), “2021년 1월 산업활동동향”

〈그림 10〉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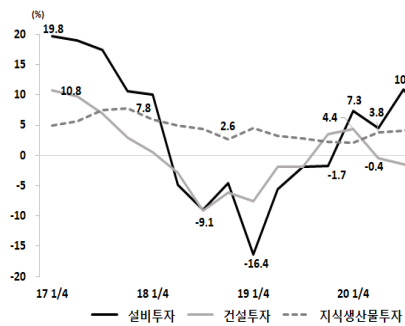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〈그림 11〉 소비자심리지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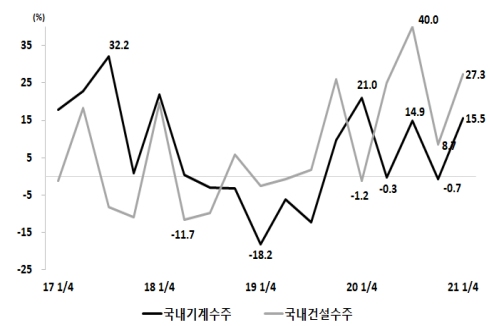
주: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2〉 건설투자, 설비투자,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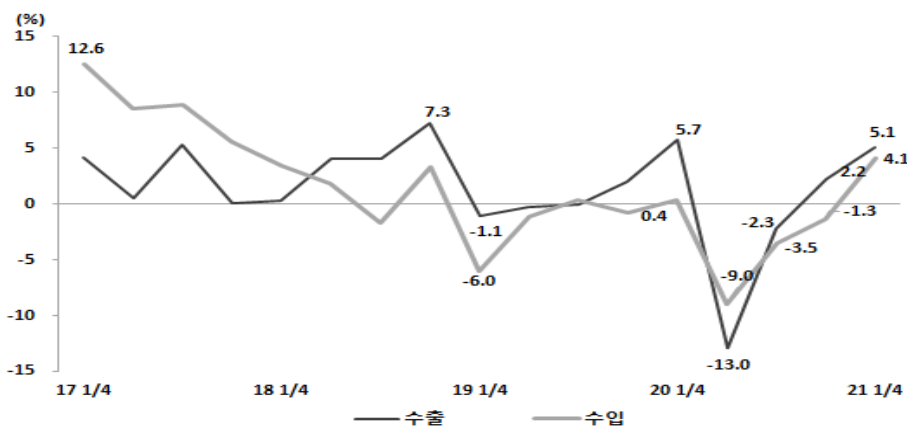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3〉 기계수주, 건설수주 증가율
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14〉 수출입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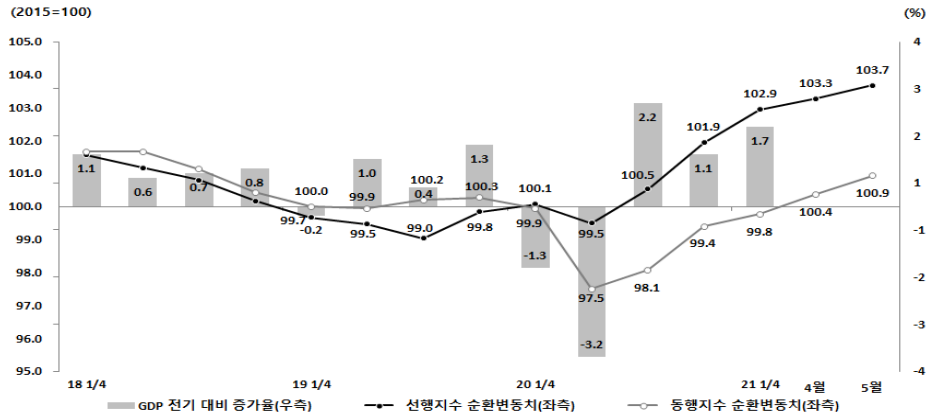


주: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
자료: 한국은행

○ 2021년 1/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,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102.9, 99.8로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

- 2021년 5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103.7와 100.9로 상승세를 지속함

〈그림 15〉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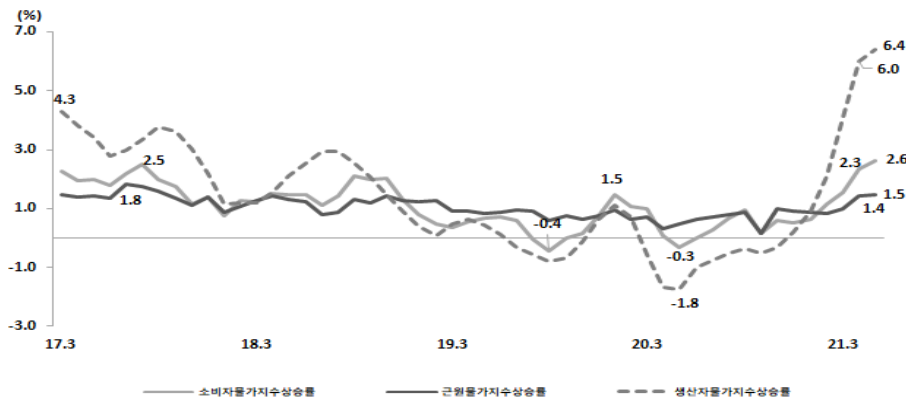


주: 2021년 4월과 5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○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6%로 2020년 5월 -0.3%를 기록한 후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,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와 석유류 가격 급등의 영향이 컸음⁹⁾

〈그림 16〉 물가상승률



주: 1)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

2)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

자료: 한국은행

9) 기획재정부(2021. 4; 2021. 5), 「최근경제동향」

○ 주요 기관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소비 회복으로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

- 한국은행과 KDI는 국내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며,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각각 4.0%, 3.8%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
- 주요 해외투자은행¹⁰⁾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3.6%(Nomura)에서 최고 5.0%(JP Morgan), 평균 4.4%로 전망함

〈표 1〉 국내 주요 기관 전망

(단위: %, 억 달러)

구분	2019	2020	2021(F) ¹⁾		2022(F) ¹⁾	
			한국은행 ²⁾	KDI ³⁾	한국은행 ²⁾	KDI ³⁾
실질 GDP	2.0	-1.0	4.0	3.8	3.0	3.0
민간소비	1.7	-4.9	2.5	2.5	3.5	4.0
설비투자	-7.5	6.8	7.5	8.5	3.5	2.8
건설투자	-2.5	-0.1	1.3	1.4	2.5	3.5
지식생산물투자	3.0	3.6	4.3	4.1	3.8	3.4
상품수출	0.5	-0.5	9.0	8.6	2.5	2.8
상품수입	-0.8	-0.1	8.3	7.9	3.5	3.2
실업률	3.8	4.0	3.9	4.1	3.8	3.9
소비자물가	0.4	0.5	1.8	1.7	1.4	1.1
경상수지	600	753	700	829	650	685
상품수지	769	819	710	867	730	836
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수지	-169	-67	-10	-39	-80	-151

주: 1) 전망치임

2) 한국은행(2021. 5), 『경제전망보고서』

3) KDI(2021. 5), 『KDI경제전망』

자료: 한국은행; KD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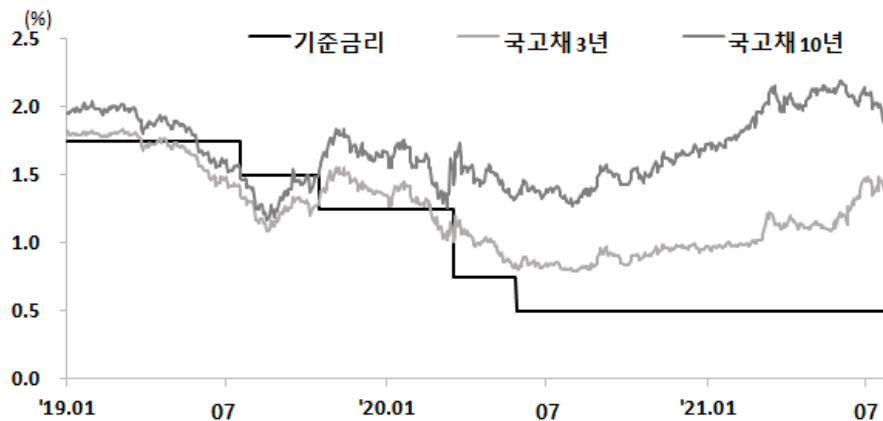
10) 9개 IB(Barclays, BoA-ML, Citi, Goldman Sachs, J.P. Morgan, Nomura, Credit Suisse, HSBC, UBS), 2021년 6월 말 기준임

2. 금융

가. 금리

-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.5%에서 동결하였고¹¹⁾ 경기 회복세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으나, 7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전 구간에서 하락함
 -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으나,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.5%에서 동결함¹²⁾
 -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,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부양책 시행을 앞두고 6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함
 - 그러나 7월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국내 수출 개선세 둔화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장기물은 하락하였고 단기물은 1.4%선에서 등락을 반복함
 -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6월 최고치인 2.20%에서 7월 1.89%로 하락함

〈그림 17〉 기준금리, 장단기 국고채 금리



자료: Bloombe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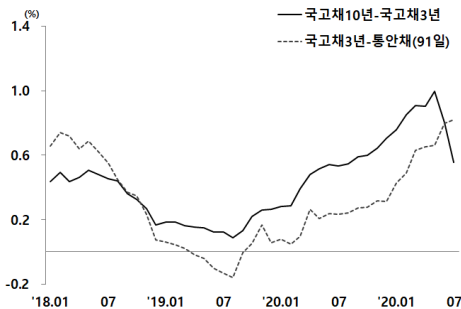
11) 한국은행(2021. 7. 15), 『통화정책방향』

12) 한국은행(2021. 7. 15), 『통화정책방향』

○ 장단기 스프레드와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와 국고채 금리 지표물 변경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축소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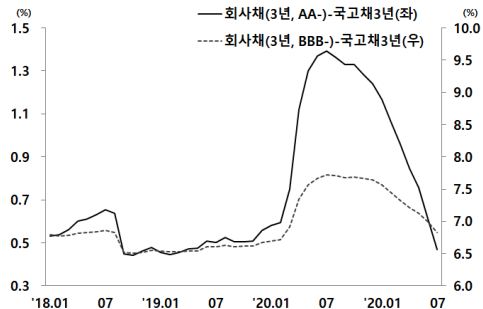
- 장단기 스프레드(10년물 - 3년물)는 경기 회복세로 장기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5월 100bp를 돌파하였으나,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금리의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, 단기물이 빠르게 상승하며 7월 말 43.4bp로 축소됨
- 신용 스프레드(회사채AA-, 국고채 3년물)는 유동성 호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회사채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, 국고채 금리 지표물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가 더해지면서 축소세를 보임

〈그림 18〉 장단기 스프레드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19〉 신용스프레드



자료: 한국은행

○ 미국 국고채 금리는 경기회복과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통화 완화적 스탠스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됨

-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3년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10년물의 경우 금리차가 소폭 축소됨

○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3/4분기 한국 3년물과 10년물 금리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함

- 2021년 3/4분기 한국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.38%, 2.17%로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0.26%p, 0.05%p 상향 조정함

〈표 2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

(단위: %)

미국 국고채(10년) 금리			한국 국고채(10년) 금리			한국 국고채(3년) 금리		
'21. 3Q	4Q	'22. 1Q	'21. 3Q	4Q	'22. 1Q	'21. 3Q	4Q	'22. 1Q
1.68	1.80	1.89	2.17	2.17	2.26	1.38	1.43	1.48

주: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8월 초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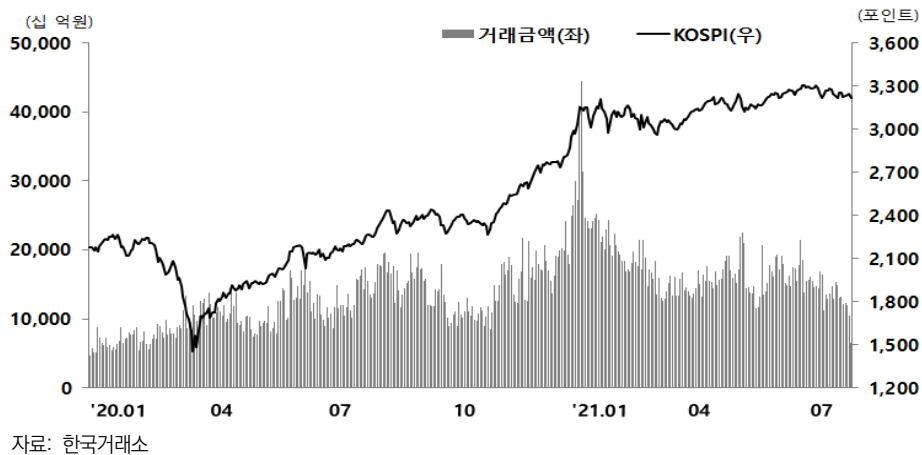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나. 주가 및 환율

○ 코스피(KOSPI) 지수는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등 경기 회복세와 코로나19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감

- 5월 코스피 지수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부담과 대규모 공매도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 확대 등으로 3,200선을 회복하며 3,204포인트에 마감함¹³⁾
- 6월에는 주요 기업 2분기 실적 개선 및 코로나19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3,300선을 돌파하였으나 국내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
 - 4월부터 7월 코스피 지수는 3,069~3,316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7월 말 3,200선에서 마감함

〈그림 20〉 주가지수 추이



○ 원/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도 확대 및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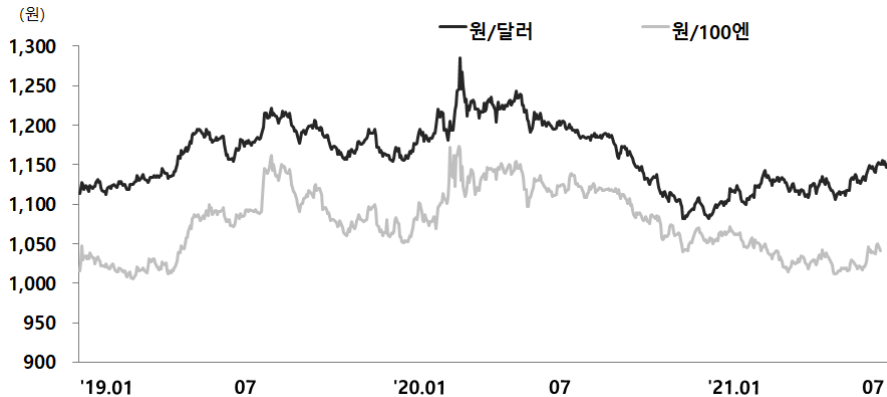
- 4월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, 선박수주 호조 등 우호적인 대내외 여건으로 1,108원까지 하락하였으나 5월 외국인 주식 매도,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며 1,130원대까지 상승함
- 이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의 긴축 전환 신호,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원/달러 환율은 1,150원대로 상승함

13) 경향비즈(2021. 5. 31), “코스피 3,200선 회복... 외국인·개인 동반매수”

○ 원/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 위험 우려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

- 4월 이후 100엔당 원/엔 환율은 1,010원대에서 1,030원대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
- 7월 원/엔 환율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100엔당 1,140원대로 상승함

〈그림 21〉 원/달러 및 원/엔 환율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○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3/4분기 환율이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

- 원/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(자산매입 축소)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며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

〈표 3〉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

(단위: 원, 엔, 달러)

구분	원/달러		엔/달러		달러/유로	
	'21. 2Q	'21. 3Q	'21. 2Q	'21. 3Q	'21. 2Q	'21. 3Q
Wells Fargo	1,126	1,170	110	111	1.19	1.17
Mizuho Bank		1,160		111		1.17
MUFG		1,110		109		1.19
JPMorgan Chase		1,135		110		1.18

주: 2021년 2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, 예측 시점은 8월 초 기준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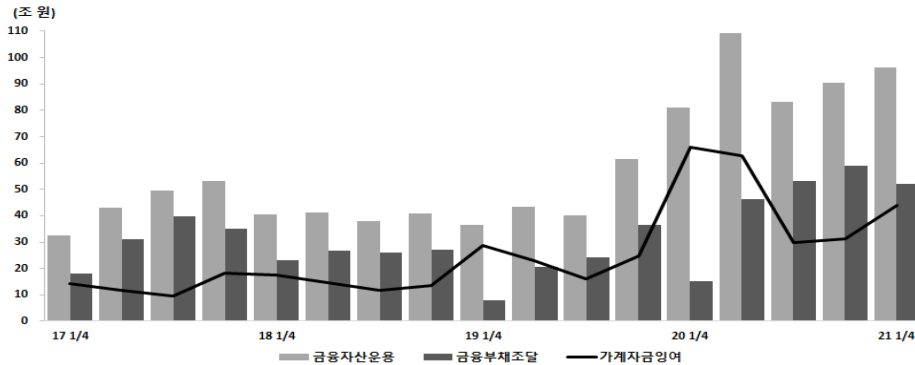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

3. 자금흐름

○ 2021년 1/4분기 가계부문¹⁴⁾의 자금잉여¹⁵⁾는 44.0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2.7조 원 증가하였음

- 2021년 1/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96.1조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금융부채 조달은 52.1조 원으로 총 44.0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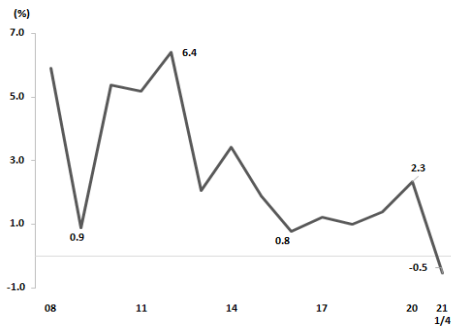
〈그림 22〉 가계자금잉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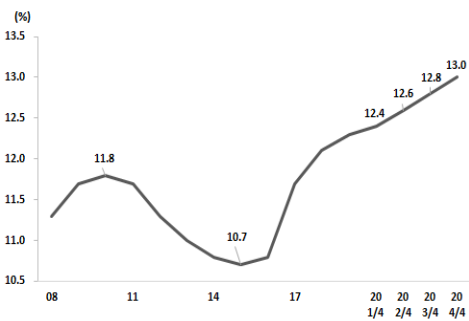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○ 2021년 1/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0.5% 하락하였고, 2020년 4/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은 13.0%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감

〈그림 23〉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



〈그림 24〉 DSR



주: 1)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

자료: BIS

- 2) 2020년 증가율은 '2인 이상 가구(농림어가 포함)'에서
'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'로 변경, 발표된 수치임

자료: 통계청

14) 가계(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)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

15)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,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

○ 2021년 1/4분기 가계부문에서 국내외 주식 거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, 채권 거래는 축소됨

- 2021년 1/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.4%로 전년도 1/4분기에 기록한 10년 내 역대 최저치 (13.3%)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

〈표 4〉 가계 금융상품 거래

(단위: 조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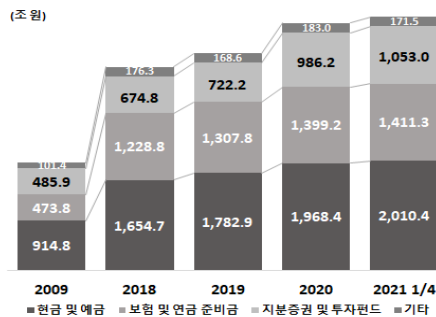
구분	현금 및 예금	보험 및 연금		채권	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	비거주자 발행주식	투자펀드	기타	합계
2017	105.4	83.3	(46.8)	-11.9	0.0	1.3	-3.6	3.6	178.1
2018	75.3	60.7	(37.8)	0.0	21.8	1.7	0.0	1.2	160.7
2019	130.7	72.0	(39.6)	-17.3	-7.9	2.1	2.0	0.0	181.6
2020	189.9	73.0	(20.1)	10.2	62.2	20.6	-6.6	14.5	363.8
2021. 1/4	41.9	13.8	(14.4)	-11.8	36.5	12.5	2.6	0.6	96.1

주: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
자료: 한국은행

○ 2021년 1/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.4%로 2020년에 비해 0.4%p 하락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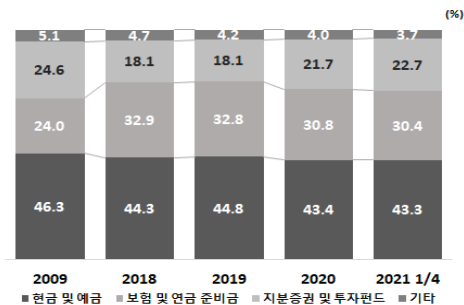
- 2021년 1/4분기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43.3%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,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22.7%로 전년도보다 1.0%p 증가함

〈그림 25〉 가계 금융자산 구성(금액)


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26〉 가계 금융자산 구성(비중)



자료: 한국은행

4. 규제·제도

○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(2021. 6. 29 금융위원회)

-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급여(주계약)과 비급여(특약)으로 분리하면서, 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,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·할증되도록 함. 의료이용이 많으면 자기부담도 증가하도록 자기부담비율도 상향 조정함(급여: 10% → 20%, 비급여: 20% → 30%)
- 기존 실손보험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감소하며,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음. 7월부터 15개 보험회사(손보사 10개, 생보사 5개)가 제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할 예정임

○ 「숨은 내보험 찾아주기」 제도 개선 추진(2021. 6. 16 금융위원회)

- 2017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「내보험 찾아줌(Zoom)」을 개설함. 소비자는 「내보험 찾아줌(Zoom)」에서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지만, 조회 후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, 전화 요청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함. 2021년 하반기에는 「내보험 찾아줌(Zoom)」에서 보험금 확인 및 지급계좌를 입력하여 모든 숨은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

○ 기업회계기준서 제1171호(보험계약),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(2021. 6. 10 금융위원회)

-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부채를 원가 기준에서 현행가치로 평가하고, 보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함. 보험회사는 시행일 전에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며, 금융당국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

○ 여행자보험 개선안을 포함한 「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·보호체계 개선방안」 심의·확정(2021. 6. 3 국무조정실)

-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음
- 이에 외교부에서 해외환자 이송·보호 전반을 총괄하고,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송 관련 비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여행자보험 상품을 개편할 것임.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·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

-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른 보험약관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 예고(2021. 5. 31 금융감독원)
 - 급여와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는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관련하여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고,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함.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2021. 3. 5)에 따른 소비자 권리 및 의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분쟁 예방을 위한 중대사유 계약해지 요건도 강화됨
-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2021. 5. 25 금융위원회)
 - 맞춤형 소액단기보험활성화를 위해 ‘소액단기전문 보험업’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,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으로 완화하여 진입규제를 정비함. 이를 통해 반려동물(640만 가구), 레저, 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 -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,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고,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함
- 손해사정제도 개선(2021. 5. 25 금융위원회)
 -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특정 손해사정사(자회사)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,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함.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·객관성에 중점을 둔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추진함
- 「비대면·디지털 보험모집 규제」 개선(보험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입법예고)(2021. 5. 17 금융위원회)
 - 2021년 3월 발표한 「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」 중에서 「비대면·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」 과제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,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
 - 대면의무 완화, 반복서명 폐지, AI 음성봇 활용 허용, 하이브리드(전화 + 모바일) 모집 그리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 등의 개선을 통해 대면·전화·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상호결합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 방식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함
- 4월부터 「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」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 확대(2021. 4. 1 금융위원회)
 -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가 「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」에서 보험 가입 여부가 조회되어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져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,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되어 가입 방법 및 절차가 보다 편리해질 것임